



“환경오염문제 해결은 우리 스스로가 몸소 실천할때부터”



정국현 / 본지 편집위원
환경청 환경정책국장

몇년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국의 스코틀랜드지역의 조그마한 도시인 “에버딘”에 2주일간 머문 일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기구(UNEP)는 날로 오염되어가는 지구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방법을 각국에 널리 보급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모든 나라가 조속히 도입토록 하기 위하여 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0여개 나라에서 온 120여명의 참가자들은 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에버딘대학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하루는 모든 참가자들이 주최측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냇개지역의 관광명소를 구경한 일이 있었다. 우리들이 첫번째로 도착한 어느 해안지역은 주차장이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바닷가에 위치한 조그마한 산에는 나무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주최측에서 나누어준 꿀과 사과를 바위에 앉아서 저멀리 북극해를 바라보면서 먹다가 내손에 남은 사과찌꺼기를 무심하게 버리려는

영국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수 주변의 길을 1m가량 되는 말뚝을 군데군데 박고 그위에 송판을 깔아 각종 곤충과 식물들을 밟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순간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합성수지로 만든 쓰레기통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넣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 쓰레기통은 주최측에서 버스에 싣고 가져온 것이며 먹다버린 쓰레기를 모두 담아서 다시 학교로 되가져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영국사람들의 마음 속에 깃들인 환경보전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헤아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년 아니 수십년이 지나면 그들처럼 관광버스에 쓰레기통을 자연스럽게 싣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방문한 다른 한 지역은 수백평의 호소를 둘러싸고 있는 늪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10여년 전에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주위는 3겹으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견학은 사람들은 사방을 유리로 만들어진 전망실에서 호수에 노니는 물새들을 볼 수 있었다. 전망실벽에는 그 호수속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새들과 어류 및 곤충의 그림을 붙여 놓았다. 또한 그곳의 관리운영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망실안에서 견학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원봉사자라 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일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는데 보람을 두고 유유자적하게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호수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1m가량 되는 말뚝을 군데 군데 박고 그위에 송판을 깔아 놓은 것이었다. 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관리인에게 물어 보니 사람이 땅위를 그

냥 밟고 지나면 각종 곤충들이 밟힐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곤충과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송판으로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자연보호를 위해 영국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필자가 위와 같은 예를 든 것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이며 날로 심화되어가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은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국민 각자의 환경보전 인식이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상수도 오염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에서는 수질오염문제를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수질오염문제는 60~70 년대의 개발우선정책으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하였을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할 수 없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서는 상품생산에만 주력하였을뿐 오염물질의 방지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일반 국민들도 환경보전에 관한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염된 수질에 대해 걱정만 하거나 남을 탓하고 원망만 한다해서 해결될 수가 없다.

더 늦기전에 우리 국민 각자는 오늘의 환경오염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나 자신은 오염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인은 자기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양심껏 적정하게 처리한 후 배출하고 있는가? 생

산과정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많은 공장에서는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약품이나 전력료를 아끼기 위하여 단속기관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공휴일이나 야간에 정상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몰래 버리는 예가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서는 공장을 건설하면서부터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놓고 비정상가동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하다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은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흔히들 생각하길 수질오염원인은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량보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하수는 대부분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오염된 하천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나 공업용수가 되기도 한다.

각 가정에 설치된 분뇨정화조는 매년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만 정화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약 40%에 이르는 가정에서는 청소비가 아까워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깨끗한 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각기 할일은 다하지도 않고 깨끗한 물만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예년과 같이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수백만의 인파가 산과 강과 바다로 몰려 들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버린 음식찌꺼기, 비닐봉지, 빈병 또는 깨진 병유리조각 등 엄청난 양의 각종 오물로 인해 산하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의 휴식처인 산과 강은 또다시 내년에도 가야할 장소인데 이렇게 더럽혀서야 되겠는가? 산골짜기에 내버린 각종 오물과 빈깡통 등은 강으로 떠내려와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미관도 크게 해치게 되며 중국에 가서는 바다를 오염시켜 연안 해조류나 물고기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영국사람들과 같이 자연을 사랑할줄 알고 자연보전을 위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명작사진처럼 보도되고 있는 잠실운동장옆 탄천과 한강과의 교차지점에 발생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거품은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탄천 주변의 각 가정에서 흘러보낸 과다하게 사용한 합성세제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수백억 또는 수천억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해도 합성세제에 의한 거품을 정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세제에 의한 거품발생으로 하천의 오염피해를 줄이자면 일반 가정 주부들이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주부들이 자기 마을 하천이 합성세제에 의해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여 이에 주민들이 적극호응함으로써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실례도 있다.

더 늦기전에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는 길은 전 국민이 환경보전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저마다 처한 위치에서 몸소 실천하는 일이라 생각 된다.

사람은 단 하루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나와 환경오염과는 무관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나와 내가족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하나같이 환경보전에 큰 관심을 둔다면 눈에 띄게 오염된 환경은 옛날 상태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더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철저히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인 동시에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해야겠다.

“환경오염자는 바로 당신이다.” *